

“이대로 가면 도산업체 속출
노·사간 상생의 길 찾아야”

박용기

삼조인쇄(주) 대표이사





본지 유창준 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용기 사장

“인쇄업계에 제2의 IMF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파주에 위치한 인쇄업체 G사가 도산했어요. 한동안 소위 잘나가던 회사였습니다. 자금압박이 있긴 했으나 이렇게 갑자기 도산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금난에 원자재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이 겹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비단 G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도산업체가 속출할 것입니다.”

박용기 삼조인쇄(주) 대표이사(파주인쇄산업단지 이사장)는 인쇄비는 30년 전과 비슷한데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은 수십 배가 올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줄도산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한다.

임금문제 등 업계 공동 대책을

△ 특단의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의 회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요. 올 초에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가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급여동결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

감소 등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 근로자들의 동요가 없었나요.

급여가 동결된다는 점에 대해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저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저도 꼭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수주의 극대화와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전직원들과 함께 나누어야지요.

△ 급여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주와 근로자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의 이익이 더 발생하면 급여 인상을 해야지요.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또 급여인상을 한다면 회사운영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우리 업계 대부분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창업한지 20년이 되었는데 그때 기장의 월급이 7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월급이 기장과 거의 같습니다. 직원들이 저의 이러한 뜻



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한없이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여러 곳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규정대로 적립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쇄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 업종 중 상위권이라는 정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인쇄업체들도 많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형국입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지지요. 인쇄업체들의 현실입니다.

△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실 인쇄업체들은 대부분의 기계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이지요. 요즘 환율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계 값이 20~30% 오른 셈이지요. 원자재 가격도 30% 내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쇄비는 제자리입니다. 인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자재 가격인상분이 인쇄비에 반영되지 못해요. 그러니 제2의 IMF 사태가 다시 올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 인쇄비가 30년 전과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인쇄업계에 입문하지 올해로 35년이 됩니다. 당시 영업 업무로 시작을 했는데 입사 1년쯤에도 종교재단의 합동결혼식 관련 인쇄물을 수주했어요. 그때 1도당 인쇄비가 900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전기계가 20일간 돌아가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가격으로 인쇄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인쇄기계가 첨단화되어서 생산성이 높아진 점은 있어요. 그렇다 해도 30년 전의 인쇄비와 비슷한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월급은 어떻습니까. 당시 제 월급이 4만원이었어요. 초임이라 해도 지금은 수십 배가 올랐지요.

△ 그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은 경영주들의 책임이 크지요. 소위 저가수주 경쟁을 영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니 말입니다. 업체도 많고 기계도 많다보니 자연



인쇄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땅한 대책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없애야 합니다. 즉 인쇄물량에 비해 시설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인건비 인상을 노사 간 협의해서 당분간 자제해야 합니다.

스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업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술 인력도 자체 양성하기가 쉽지 않아 타사에서 스카웃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보니 급여가 계속 오르지요. 이러한 악순환이 수십 년째 지속되기 때문에 인쇄업계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없애야 합니다. 즉 인쇄물량에 비해 시설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인건비 인상을 노사 간 협의해서 당분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점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보다도 인쇄비 낮아

△ 인쇄단가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4색기 기준으로 월 평균 7천만 원은 매출이 발생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가동해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8시간만 가동하면 수지가 맞는 체제라고 하더군요. 인쇄비가 그만큼 적정하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나라도 인쇄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인쇄업체들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 질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인쇄비보다 한국의 인쇄비가 낮다고 하니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도산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 인쇄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8·15해방 후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 중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업체는 14개 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업의 생존기간이 길지 않다는 증거지요. 도산의 이유야 뻔한 것이지요.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쇄업체들도 장치산업인 관계로 부채가 많은 편입니다.

요즘 자금난으로 사채를 쓰는 업체도 많다고 해요.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겠지만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자들과 경영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 기업이 도산하면 기업주만 불쌍합니다. 모든 걸 잃은 허탈감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의 인쇄업계는 경영주나 근로자 모두 위기라는 사실을 공감해야 합니다.

기업주는 경영에 만전을 기해 이익을 발생시켜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며, 근로자들은 업계의 어려움과 경영주를 이해하고 더 노력하여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큰 기업들이 솔선수범하고 단체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금조정이라든가, 인쇄비 인상문제, 인력문제 등을 한 업체에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창준 국장 chang@print.or.kr